

선교학사전

편집위원장

A. 스캇 모로우

편집위원

해롤드 네틀랜드 · 찰스 맨 앵겐

책임감수

김만태

번역위원

김만태 · 김바나바 · 김중식 · 박보경

이정순 · 조은혜 · 최원진 · 최정만

기독교문서선교회



기독교문서선교회(Christian Literature Crusade: 약칭 CLC)는 1941년 영국 콜체스터에서 켄 아담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제 본부는 영국의 웨일드에 있습니다. 국제 CLC는 59개 나라에서 180개의 본부를 두고, 약 6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동도서차량 40대를 이용하여 문서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메일 주문을 통해 130여 국으로 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CLC는 청교도적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서적을 출판하는 문서선교기관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길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Edited by

General Editor: A. Scott Moreau

Associate Editors: Harold Netland · Charles Van Engen

Translated by

Mantea Kim et al.

Copyright © 2000 by A. Scott Moreau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as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by Baker Books,

Translated and used by the permission of

Baker Books, a division of Baker Books House Company,

P.O. Box 6287, Grand Rapids, MI 49516-6287, U.S.A.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2014 by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Seoul, Korea

추천사

박기호 · 김성태 · 장훈태 · 김영동 · 문상철

박기호 박사

플러선교대학원 아시아선교학 교수 ·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원장

1907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그리고 1913년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가 중국 산둥성 주재 선교사로 파송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면모를 보여왔다. 한국 교회는 2013년 현재 2만 4천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구촌 각 곳에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역동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글로벌 선교운동에서 선교에 대한 바른 관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독특한 봉사를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교파확장 차원에서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도래라는 관점과 섬김은 제자도를 통해 선교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 간에, 서양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펼쳐야 한다. 또한 서양의 선교와 비서양의 선교를 모두 이해하면서 글로벌 선교 협력의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선교에 수반되는 많은 주제들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소화한 선교학사전이다.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성경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선교현장을 잘 이해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의 역사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복음전도와 제자도, 사회적 책임을 모두 견지할 수 있는 선교신학적 기초와 타문화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타문화 선교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동역할 수 있는 교차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들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천 년간의 선교에서 나타난 선교신학적 관점의 양상, 선교사역의 성과와 문제, 이슈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날 선교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활동한 선교사들과 국내선교 지도자들 483명에 대한 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700여 개의 주제를 다룬 소논문들을 실고 있다. 일반적인 사전이 아니라 심도 있는 대규모 논문집이라고 부를 만하다. 풀 피어슨, 풀 히버

트, 찰스 크래프트, 랄프 윈터를 포함하여 선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선교운동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330여 명의 기고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였다. 가히 전세계 복음주의 선교계가 힘을 모은 작품이라고 하겠다.

여러 번역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동지 김만태 박사가 책임 감수하여 이 책이 한국어로 출간되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와 선교 헌신자,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보고의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한다. 책상에 두고 자주 참조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성태 박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국제관계 대표

금번 CLC 출판사에서 스캇 모로우의 선교학사전을 완역하여 한국 교회에 소개함에 감사를 드린다. 모로우는 국제CCC선교회에 소속되어 아프리카에서 10년이 넘게 선교사의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귀국 이후에는 시카고에 소재한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대학 선교학 주임교수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많은 선교학 관련 책들을 편집하거나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이 이 선교학사전이다. 이 책의 특징은 선교와 관련된 각 나라, 종족, 지역, 선교역사, 특정용어, 선교지도자, 선교학자, 선교신학, 현대선교의 중요 이슈 등등을 총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항목의 내용을 집필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글을 작성하게 했다. 선교의 기초적인 문제부터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입체적,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만한 내용의 지침적인 책이 없다. 모든 내용이 다양한 교회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선교지도자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일독을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 그리고 선교지도자들에게 적극 권한다.

장훈태 박사

백석대학교 교수 · 전(前)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본서는 미국 Beker Book House에서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출간한 선교에 관련된 가장 방대한 책이다. 이 귀하고 위대한 사전이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선교학을 연구하는 학생, 세계 복음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번역되어 소개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본서의 제목은 『선교학사전』(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으로 선교학, 선교연구, 선교사들은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할 책이다. 본서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선교학 전반에 관련된 용어

와 해설 외에 기독교의 핵심진리, 문화, 인류학, 목회학, 실천신학, 선교와 교육, 선교리더십, 성경신학, 선교전략과 정책 등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용어와 해설이 잘 설명되어 있다. 선교학을 처음 접하는 평신도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예비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선교학 전반의 용어와 주제들은 성경신학적, 선교신학적 개념을 통합하여 선교교육학, 선교와 타문화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선교역사, 선교인류학, 종교학, 사회학, 선교철학적 개념을 체계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본서는 선교전략, 선교의 이론과 실제, 현장성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서는 선교학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전문성, 현장성, 현상학적 이해,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소중한 통찰력과 분석력을 제공한다. 기독교 학문을 전공하는 신학도들과 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자, 선교단체와 각 교회 선교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선교학은 전체 신학의 역사 안에서 비교적 광범위하면서도 새롭고 젊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용어 이해와 개념 정리, 폭넓은 지식 전달, 궁금증에 대한 해답 등은 사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서의 출간과 함께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선교학계에서 선교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깊어지고 선교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선교학사전』이 출판 소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 사전의 출간을 위해 번역에 참여한 분들과 출판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학의 발전을 위해 기쁘게 출판해준 기독교문서선교회 박영호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영등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장 ·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 소장

한국 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아 복음주의 관점에서 『선교학사전』이 출간된 것은 역사적 의의가 크고 바른 선교이해와 실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한국 교회 선교는 성경 말씀에 굳게 서면서도 선교사역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개혁하는 선교”가 되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 1400개가 넘는 주제어와 250개의 참고어를 담고 있는 본 사전은 선교신학적 이해와 활동에 대한 성찰과 선교에 대한 소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선교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사전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고, 선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바른 해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균형 잡힌 견해와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본 사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비록 서구학자들이 편집한 사전이지만 비서구인들(인물 중 약 20%)과 여성들도 다수 포함하였고 여러 대륙 출신의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 보다는 보편적 수준의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함으

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 선교학자들도 혼돈하기 쉬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선교의 이해 증진과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게 하였다. 아무쪼록 본 사전을 통해 평신도,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 선교 전문가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얻고 한국 교회 선교의 열정과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문상철 박사

한국선교연구원(krim) 원장

분명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편찬된 『선교학사전』이 한글로 나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분량 면에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선교 상황과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 사전은 선교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 아니할 수 없다. 선교학자들과 선교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흔적이 보인다. 다양한 기고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표출하고 있지만 억지로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시각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지면 할애에 있어서도 대륙별 및 성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 흔적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요한 자료가 한글로 번역된 것은 한국 선교운동이 보다 더 선교학적 지식 축적을 기반으로 발전해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이 시기에 큰 힘이 된다. 선교에 있어서 활동과 숙고는 함께 가야 한다. 연구하면서 사역할 필요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전은 필수적인 자료이다.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배우면서 부딪히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 사전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보다 깊은 후속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 사전이 쓰임받기를 바란다. 원전의 편집자 및 기고자들, 그리고 한글판의 감수자 및 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감수자의 말

김만태 교수

미국 LA 베데스다대학교 선교학 교수

이 책은 지난 2천년 동안 세계적으로 펼쳐져 온 선교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석학들과 선교단체 지도자, 선교 전문가들이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깊이 있고 동시에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각각의 표제어마다 진귀한 참고 문헌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어서 주제를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 준다.

한국은 피선교국이었으나 개신교 선교가 한국에서 시작된지 130년 정도 된 현재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가 기초되어 있을 때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선교활동들과 이슈들, 선교신학적 관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선교현장, 우리의 선교관과 사역을 통찰할 때 세워질 수 있다.

19세기에는 영국을 위시한 유럽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였고 20세기에는 미국이 그러하였다. 1900년에 세계 인구의 80퍼센트가 유럽과 북미인들이었으나 오늘날은 45퍼센트 정도이며 비서구권 기독교 인구가 더 많다. 파송 선교사의 수 역시 비서구권 선교사가 더 많다. 한편, 아프리카와 남미가 복음화가 많이 되었음에 비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종교권, 즉 불교, 힌두교, 회교권의 복음화는 상대적으로 많이 미약하다. 한국은 민간종교, 유교, 불교의 전통이 있던 나라로서 불과 100여 년 만에 기독교인구가 20퍼센트에 이르게 된, 예가 드문 나라이다. 한국이 세계 종교권과 비서구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성과 공감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지역들과 민족들을 위해 선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경적, 타문화적인 선교적 관점이 결여된다면 성육신적 선교사역의 실천은 아득할 것이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인과 힌두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인도의 지식인, 종교인, 서민들과 소통하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고 봉사하며 복음과 배치되는 전통에 대하여 변혁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는 불타는 선교사명, 헌신과 더불어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은 성경적 관점, 역사적 사실,

문화적 이슈, 전략과 방법,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선교단체와 선교운동 등 선교에 대한 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고 견고케 해 줌으로써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섬기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선교학에 조예가 깊은 여러분들이 번역을 분담하였고 본인은 이 책의 감수자로서 전체 원고의 40퍼센트 정도를 번역하였다. 영어 원서는 전 세계의 약 330명의 필자가 참여한 역작이다.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을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 출판하기로 결정하신 CLC 박영호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일반 책보다 몇 배 힘든 본서의 교정, 편집 작업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 편집부 여러분들과 CLC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서문

(Preface)

지난 25여 년 전 선교사전(『간추린 기독교 세계선교사전』 <Concise Dictionary of Christian World Mission, 1971)이 출간된 이래 선교와 선교학 분야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는 복음주의 진영이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선교학 연구에서도 더욱 진전해왔다는 것이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성경적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새롭고 신선한 연구방식과 분석도구를 통하여 선교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복음주의 선교에 기여해왔다. 최근 몇 년간 선교학계에 인명사전, 선교단체 안내서, 선교통계사전, 지구촌 선교사역을 위한 증보기도 지침서,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사전류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연구물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뚜렷이 복음주의적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선교사역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부재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서 『선교학사전』(The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을 발행하게 된 동기이다.

『선교학사전』은 서로 다른 교단적 관점과 견해에 조화를 이루면서도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교회에 위임한 사역인 선교 전반에 대해 읽기 쉽게 제작되었다. 이 사전은 복음주의 선교에 “대한” 사전이 아니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선교학사전이다.

이 사전은 교육받은 평신도, 목회자, 학생, 선교사, 그리고 선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저술되었다. 이 사전은 『복음주의 신학사전』(The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복음주의 성서신학사전』(The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심리학과 상담학 베이커 백과사전』(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복음주의 성경주석』(Evangelical Commentary on the Bible), 그리고 『베이커 변증학 백과사전』(Baker Encyclopedia of Apologetics)을 포함한 베이커 출판사의 도서관용 참고서적 시리즈의 일부이다. 이 사전의 저술 방향, 형식, 그리고 유형은 다른 시리즈와 동일하다.

또한 『선교학사전』은 그 양에 있어 규모있으면서도 충분히 구성되었고 수천 개의 가능한 주제어들을 선정 과정에서부터 심의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선교이해와 활동을 포함하여 선교에 관한 약 700개의 소논문이 포함되었다. 인물과 나라들을 포함하여 1,400개가 넘는 주제어가 실려 있고 독자들이 관심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50개의 참조어를 첨부했다. 주제어의 첨삭에 있어서는 항상

다양하고 분분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독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종 목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

주요 특징들(Features to Note). 『선교학사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몇 가지 특징을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각 주제어는 선교학적 측면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학적 주제에 대한 글들은 보편적인 신학의 이해에 대한 개요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 중요한 통합적인 주제들, 논쟁, 적용 등을 함께 다루게 된다. 여기에는 적절한 비평적인 평가도 함께 포함하였다.

둘째, 비전문적인 독자들을 위해 전문용어의 사용보다는 보편적 수준의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글의 표현이 학자들에게는 옹고 분명하며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독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사전 안에서 최대한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장치를 했다.

(A) 각각의 글이 다루는 주제어가 다른 곳에서 나올 경우 이를 표기하였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사전 안에서 “하나님”, “예수”, “선교”, “선교학”, “이슬람” 등과 같이 일반적인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B) 각 글의 끝에 참조 주제어를 표기하였다.

(C) 마지막으로 인물색인을 수록했고 주제 소논문(the content article, 인물과 지명 제외)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선교 분야 교육자들이 선교학 강의를 할 때 주제별로 소논문들을 적절히 찾아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한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 사전을 통해 연구와 통찰이 더 진전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주제 글들 끝에 참고문헌들을 첨가하였다. 모든 관련 문헌들을 다 기재한 것은 아니고 주요 참고문헌들만을 수록했다. 베이커 출판사의 다른 시리즈물들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참고문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330명의 기고자들로 이루어진 작업에는 당연히 다른 의견들과 용어 사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 인위적으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에 대한 폭넓은 관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다른 견해뿐 아니라 특정한 용어의 사용에도 함께 적용되며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경우 인위적인 통합을 요구하기 보다는 저자들이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우리의 결정이었다.

(A) 개발도상국, 비서구권, 제3세계, 2/3세계 등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과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B) 선교학계 내에서 “문화 간 문화”(intercultural)와 “타문화/교차문화”(cross-cultural)라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통성이 남아 있다. 용어적으로만 보면 이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지칭한다. “문화 간 문화”가 통상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반면, “타문화/교차문화”는 비교하거나 대조하기 위해 여러 상이한 문화들 속에서의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선교학 문헌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C) 마지막으로 선교(Mission)와 선교들(Missions)이라는 두 용어는 문헌상에서 일괄적이지 않게 사용되곤 한다. 복음주의권 내에서 용어 선택과 사용에 대하여 계속 논쟁이 있는데(주제어 선교(Mission)와 선교들(Missions)을 보라) 이 사전에서는 저자들이 자유롭게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여섯째, 이 사전에는 483명의 인물을 주제로 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선교의 양방향성(two way)을 반영하여 92명의 비서구인들을 다루었다. 선교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여 105명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대륙별로는 유럽에서 239명, 북미에서 152명, 아시아에서 48명, 아프리카에서 22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서 12명, 그리고 오세아니아주에서 10명의 인물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들 중 196명이 아시아에서, 94명이 아프리카에서, 66명이 유럽에서, 53명이 북미에서, 49명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서, 25명이 오세아니아주에서 사역하였다. 인물 설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생존 인물을 지양하였지만 복음주의 선교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관계로 52명의 생존 인물도 포함하였다. 인물 설정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4명의 중요한 비서구권 지도자를 제외하고는(판야 바바(Panya Baba), 조용기(David Younggi Cho), 르네 파딜라(Rene Padilla), 루이스 팔라우(Luis Palau)) 생존 인물의 나이를 1930년대 생 이전으로 설정하였다.

일곱째, 나라에 대한 글의 경우 저자들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쓰도록 자유를 주었다.

모든 글이 통계수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경우는 일관성 있게 통계수치를 수록하였다.

(A) 각국의 인구수는 유엔에서 발행한 “주후 2000년 인구전망”(United Nations 1994 projections for the A.D. 2000 populations)을 인용하였다.

(B) 모든 나라의 면적(제곱마일(Square miles), 제곱킬로미터(Square kilometers))은 『맥밀란의 세기별 세계지도』(MacMillan Centennial Atlas of the World, 1997)를 사용하였다. 추가로 국가에 대한 글들은 역사적으로 호명된 이름보다는 현재 불리고 있는 국명을 주로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황금해변은 가나(Gold Coast is Ghana); 시암은 태국(Siam is Thailand)). 한 가지 예외는 예전에 자이레(Zaire)로 불리던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인데 이 사전이 이미 완전히 제작되어 수정하기에는 늦은 상황에서 국명이 바뀐 경우이다.

감사의 말(Acknowledgments). 이 장엄하고 중대한 사업에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허락된 지면이 너무 짧다. 특별히 본인은 이와 유사한 많은 편집에 참여한 두 분의 편집인인 J. D. 더글라스(J. D. Douglas)와 월터 A. 엘웰(Walter A. Elwell)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 작업에서 그들의 충고와 격려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부편집인과 기고문 편집인들은 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중 매우 귀중한 자료와 참고자료들을 공급해 주었다. 그들은 시작 시에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었으며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필요로 이 사전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특히 유엔 인구통계를 위해 수고한 데이비드 바렛(David Barrett)에게 감사한다. 수년간에 걸쳐 휘튼대학의 많은 대학원 조교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없었던들 이 작업은 순조롭게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웬디 라슨(Wendy Larson), 페니 메이슨 구쉬켄(Penny Mason Gushiken), 트레이시 스미스(Tracy Smith), 게리 램(Gary Lamb), 그

레이스 클레인(Grace Klein), 제키 부쉬(Jackie Busch), 셰리 스키너(Sheri Skinner), 비키 케인즈(Vicki Cairns), 니콜 페리아(Nicole Feria)에게 감사한다. 또한 베이커 출판사 관계자들, 특히 짐 위버(Jim Weaver), 마리아 덴보에르(Maria denBoer), 레베카 쿠퍼(Rebecca Cooper)는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시종일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나는 “휘튼대학의 선교와 다문화 연구소”(The Missions and Intercultural Studies department at Wheaton College)의 동료들인 존 그라션(John Gratton), 더그 맥코넬(Doug McConnell), 에비 캠벨(Evvy Campbell), 로버트 갈라거(Robert Gallagher), 알란 시맨(Alan Seaman), 체리 피어슨(Cheri Pierson), 캐롤 파울러(Carol Fowler)의 후원과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는 또한 중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안내와 격려를 해 준 분들, 특히 켄 멀홀랜드(Ken Mulholland)와 켄 길(Ken Gill)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의 손에 완성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귀한 지원과 환경을 허락해 준 휘튼대학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목차

(Contents)

- 추천사 · 박기호 박사 (폴러선교대학원 아시아선교학 교수) _ 5
- 추천사 · 김성태 박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_ 6
- 추천사 · 장훈태 박사 (백석대학교 교수) _ 6
- 추천사 · 김영동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장) _ 7
- 추천사 · 문상철 박사 (한국선교연구원 원장) _ 8
- 김수자의 말 · 김만태 박사 (미국 LA 베데스다대학교 교수) _ 9
- 서문 _ 11
- 편집자 _ 17
- 역자 _ 18
- 기고자 _ 19
- 약어표 _ 43
- 본문 _ 49
- 주요 항목 주제별 목록 _ 1795
- 색인 _ 1827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편집자 (Editors)

스캇 모로우 (A. Scott Moreau <D.M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스캇 모로우는 윌튼(Wheaton) 대학의 선교와 이종문화학(Intercultural Studies)과 부교수이다.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와 함께 일하면서 그는 나이로비국제신학교(the Nairobi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에서 8년 동안 가르쳤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학교육인정협의회(the Accrediting Council for Theological Education) 차장으로서 섬겼다. 모로우 박사는 『영적인 세계』(*The World of the Spirits*), 『영적 전쟁의 본질』(*Essentials of Spiritual Warfare*), 그리고 그가 부주필을 담당했던 『20세기 기독교 인명사전』(*Twentieth-Century Dictionary of Christian Biography*)과 같은 몇몇 주요한 책들을 포함하여 칭찬할 만한 수많은 책들을 출판했다.

해롤드 네틀랜드 (Harold Netland <Ph.D., Claremont Graduate School>).

해롤드 네틀랜드는 종교철학과 선교학 부교수로 섬기고 있다. 그는 또한 트리니티신학교의 이종문화연구 프로그램 철학 박사 학위 감독자이다. 트리니티에 오기 전 네틀랜드는 다년간 도쿄기독교대학(Tokyo Christian University)의 교수로 봉직했다. 그는 또한 일본에서 미국복음주의자유교회 선교사로 9년간 섬겼다. 네틀랜드 박사의 출판된 수많은 작품들에는 선교, 변증학, 그리고 동아시아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과 함께 책 『불협화음: 종교다원주의와 진리의 문제』(*Dissonant Voice: Religious Pluralism and the Question of Truth*)가 있다.

찰스 밴 엥겐 (Charles Van Engen <Ph.D.,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찰스 밴 엥겐은 미국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of Mission)의 아더 F. 글래스 교수직(Arthur F. Glasser Professor)을 맡고 있다. 그는 풀러신학교에 오기 전에 미시간(Michigan) 주에 있는 웨스턴신학교(Wester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다. 또한 찰스 밴 엥겐 박사는 1997년에 미국개혁신교회총회(General Synod for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의 회장으로 섬겼고 회장직을 수행하며 두루 여행하였다. 그의 광범위한 출판물들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God's Missionary People*), 『미래의 선교: 선교신학의 쟁점들』(*Mission-On-the-Way: Issues in Mission Theology*), 『하나님의 발자취와 선교』(*Footprints of God: Mission OF, IN, and ON the Way*) 등이 있다.



역자



- 김만태 (Ph. D. 미국 LA 베데스다대학교 선교학 교수)
- 김바나바 (Ph. D. O. M. 선교사)
- 김중식 (Ph. D. 한국성서대학교 선교학 교수)
- 박보경 (Ph. D.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 이정순 (Ph. D.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
- 조은혜 (GMTC 한국선교훈련원 교수)
- 최원진 (Ph. D.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 최정만 (Ph. D.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